

예레미야서 소개

칼리 크라우치(Carly Crouch) 박사는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

격변과 혼란의 시대에서 나온 모든 구약성경을 살펴봐야 하는지 아니면--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보면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이번 학기에 한 학생이 말하더군요. "제가 한 7 살이었을 때 엄마에게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. 엄마는 하나님께 화 내면 안된다고 하셨어요. '그런 말 하면 안 돼'라고 하셨어요." 저는 "아니에요.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. 걱정하지 말아요"라고 말해주었습니다.

저는 칼리 크라우치(Carly Crouch) 박사입니다. 풀러신학교의 David Allan Hubbard 구약학 교수입니다.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.

예레미야서는 기원전 7세기 말엽부터--기원전 6세기 초 몇 십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. 큰 혼란과 격변, 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발생합니다.

예레미야서는 앉아서 읽으려고 하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평범한 성경처럼 읽히지 않습니다.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시를 담고 있습니다. 사회적 정의의 실패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에 대한 정죄의 시입니다. 30장과 31장에는 심판 후 회복을 고대하는 희망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. 이방 국가를 상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의 다양한 죄를 나열하고 해석하는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왜 심판이 다가오는지를 설명합니다.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. 예레미야와 유다 왕들 사이의 교류와, 다른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의 관계와,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.

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? 예레미야서가 때때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해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최근 이 성경의 무질서함과 혼돈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는--이 무질서와 혼란의 감정이--여러 종류의 격변과 트라우마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을 반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.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일관된 이야기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.



특히, 학자들이 최근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생각해 온 매우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--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이 성경의 특별한 관심이--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이사야나 아모스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삶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레미야의 삶을 이용하고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--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.

예레미야의 고통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 같습니다.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크게 괴로워합니다. 예레미야의 고통에서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부르고, 하나님께 부르짖으며,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신 일과 그것이 그의 삶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항의합니다.

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면허이며,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 면허입니다.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종종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항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두려워합니다.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라는 인물과, 선지자 예레미야는 욕기와 시편 같이 우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제공합니다.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
